

민 지 실	음 혜 천	<h1>BUDDHANARA</h1>	FAITH WISDOM ACTION
----------------------	----------------------	---------------------	---------------------------

우리는 부처님 제자들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佛性을 밝힌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법회

매달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정기 법회
첫째주 일요일 11 시 초하루 기도 및 인등기도 법회
셋째주 일요일 11 시 전법기도 법회



조지아주 애틀랜타 법회

둘째주 일요일: 정기법회 2 시-4 시
George Pierce Community Center

불국사 후원회 (불국회)

-법회는 한국에서 매달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후원회
법회 참가를 희망하시는 불자님 들은 미국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불국사나 한국에 있는 불국회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모임

- Buddha's Disciples Zen Meeting -

Every Tuesday 7 pm. (매주 화요일 저녁 7 시)

Every Saturday 9am. (매주 토요일 9 시)

Program: Sitting & Walking Meditation, Da-do (Tea Ceremony)

이달의 법구경

“이것은 별로 큰 선행도 아닌데,” 하고
작은 선행이라 생각 말라.
물방울이 모여 곧 항아리를 채우듯
작은 선행이 쌓여
머지않아 많은 공덕을 이루네.

Hold not a deed of little worth, thinking ‘this is
little to me.’
The falling of drops of water will in time fill a
water-jar.
Even so the wise man becomes full of goods,
although he gathers it little by little.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정진하여 불국정토 성취한다.

불국사 (Buddhanara Temple)

www.buddhanara.net

874 Berick Dr. St. Louis, MO 63132

☎ (314) 993-0185; 239-9068

2009 년은 부처님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전법의 해”가 되도록 힘씁니다.

수행은 몸과 마음을 닦는 일이다.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여러 가지 마음을 일으키게 된다. 욕망이나 분노, 어리석음, 질투, 아만 등 인간의 무지는 숙명적으로 삶을 관통한다고 할 수 있다. 수행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방편이다. 탄생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탐(貪) 진(瞋) 치(癡) 삼독심으로 오염되고 상처받은 몸과 마음을 본래의 맑고 밝은 상태로 되돌리고자 하는 일이다.

부귀와 명예, 권력을 소유하기 위한 끝없는 욕망, 그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 일어 나는 만이나 화. 이 모든 것들이 어리석고 무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인간은 이러한 삼독심(三毒心)을 바탕으로 수많은 경험, 기억, 생각, 관념, 가치관 등의 쓰레기를 몸과 마음에 쌓아온다. 그 결과 인간의 심신은 어느덧 답답하게 막히거나 탁한 흙탕물 같은 상태가 되어간다.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고, 비워내고, 닦아주고, 보듬어 줌으로써 '나라고 하는 존재'의 본래 모습을 되찾고자하는 일, 그것이 바로 수행인 것이다.

수행의 궁극적 목적은 깨달음이다.

수행의 궁극적 목적은 깨달음이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의 모습은 무엇이였을까. 수행은 그것에 대한 깊은 탐구이면서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어떤 상황, 어떤 대상에도 걸리지 않고 자유로운 부처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행의 궁극인 깨달음과 우리가 일상에서 찾고자 하는 행복이나 마음의 평화는 따로 분리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세상 어떤 것에도 걸림이 없는 대자유라는 뿌리에서 자란 가지들이다. 바로 그 대자유가 부처이고 해탈이며 큰 깨달음이다. 인간은 원래 그런 대자유인이었다. 본래 부처라고 한다. 그런데 우주와 인생에 갇혀 있는 궁극적인 이치를 밝게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에 급급하고 얽매여서 온갖 업을 지으며 헛되이 윤회를 한다. 이것이 무명(無明)이다. 진리에 대해 무지한 상태라는 뜻이다.

인간이 무명에 빠져드는 이유는 바로 '나'라는 아상과 그로 인한 번뇌 때문이다.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나'라는 생각은 인간의 필연적 조건이 되어서 삶 전반에 따라다닌다. 말 못하는 갓난아이도 '나'의 엄마를 찾는다. 그 아이는 차츰 성장하면서 나의 가족, 나의 성격, 나의 자존심, 나의 재산을 끌어안게 된다. 이른바 아상(我相)이 생기는 것이다. 만 명의 사람이 있다면 만 명이 모두 다른 아상을 가지고 산다. 부모가 다르고 형제가 다르며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한 아상은 곧 수많은 번뇌를 만들어낸다. 번뇌 중에서 가장 뿌리 깊은 것이 탐진치 삼독심이며, 자신의 본래 모습을 찾지 못하게 하는 대표적인 독약과 같은 것들이다.

수행은 원래의 뿌리를 찾아가는 일이다.

수행은 바로 이러한 아상과 번뇌를 소멸해가는 몸과 마음의 작업이기도 하다. 생각을 소멸하고 견해를 소멸하고 의도를 소멸하고 욕심을 소멸하고 감정을 소멸하는 일이다. 수많은 번뇌를 소멸함으로써 여기에 본래 있었던 부처와 평화, 자비, 행복을 찾아가는 일이다. 원래의 뿌리를 찾아가는 일인 것이다. 내안에 본래 있었던 평화와 자비, 행복을 찾아가는 수행자의 몸과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유연성과 면역력이 생성된다고 한다. 이는 몸과 마음의 찌꺼기들이 떨어져나감으로써 생기는 필연적 현상이다. 만성 통증, 두통, 신경증, 우울증, 고혈압, 심장병 등의 완화나 치료효과는 수행의 응답이기도 하다. 드문 경우지만, 수행을 했다하여 수행 경력을 훈장처럼 빼기는 경우가 있다. 드러나지 않는 속마음에 그칠지라도 그것은 '나'라는 상이 분명한 수행병 증세이다. 이 병이야말로 세상의 어떤 약이나 가르침으로도 치유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러므로 한시도 쉼 없이 자신이 몸과 마음을 살피서 '나'라는 마구니의 꼬임에 빠지지 않을 일이다.

우리나라에 알려진 수행의 종류는 십수 가지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많은 불자들이 활용하는 수행법을 열거하면, 염불 수행, 주력 수행, 절 수행, 독경, 간경 수행, 사경 수행, 사불 수행, 지관수행법 등이 있다.

염불수행

부처님을 염함으로써 내 마음 또한 부처님처럼 바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염불수행은 아미타부처님의 육자 명호를 외우면서 부처님께 귀의하는 것이 요체이다.

주력(呪力)수행

특정한 문장이나 음절을 입으로 계속 염속하는 수행법을 말한다. 진언이라고도 하는 주력의 언어는 일반적인 의사소통의 말이 아니라 초월적이고 신성한 의미와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본다. 수행자는 이러한 언어를 반복적으로 염송함으로써 자신의 업장을 털어내고 극락왕생한다고 믿는다.

절수행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수행법이다. 절은 자신의 신체를 낮춰서 상대를 높이는 수행이라고 할 수 있다. 절 수행은 두 무릎과 두 팔꿈치와 이마 등 다섯 부분을 땅에 붙여 온몸으로 예배하면서 양손으로 상대방의 발을 받든다는 의미에서 오체투지

(五體投地)라고도 한다. 절이 수행이 될 수 있는 것은 탐진치 삼독심을 내리면서 아상이 없는

무아를 성취 하기 때문이다.

독경(讀經), 간경(看經) 수행

말 그대로 '경을 읽거나 보는 공부'이다. 이 독경 내지 간경의 대표적 대상으로는 경(經), 율(律), 논(論) 삼장이 이에 해당된다. 부처님 말씀을 수지독송하는 독경, 간경은 승단의 일과 중에 하나로 자리잡혀 있다. 특히 새벽녘의 독경은 부처님 당에서부터 재가신자들의 일과에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경(寫經) 수행에서 사(寫)의 의미는 "베끼다, 옮겨놓다, 본뜨다"이다. 즉, 사경은 부처님 말씀을 옮겨 쓰는 것을 의미한다. 사경 또한 경을 논 삼장을 중심으로 옮겨 쓴다. 이는 진리를 한자한자 정성스레 베껴쓰면서 부처님의 생을 닮아감으로써 성불에 이르하고자 하는 데 근본 목적이 있다. 사경하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이해하면서 그것을 내면화하면 부처님과 같아지는 것이다.

향산칼럼: 한국의 대표 선사에게 '딴지' 걸기 1

죽비로 마구 때리는 것이 점점일까?_ 석종사 혜국스님

1.

'선禪'은 보통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가기에 너무 먼 것일까? 부처님 가르침이 모두 그러하듯이, '선' 또한 그런 것이 아닐 터인데 한국의 선사들이 보여주는 모습과 그들이 내놓은 언설言說들은 너무 멀게만 느껴진다. 혹 이런 말을 하면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공부를 하지 않은 놈들이 함부로 말을 한다"고.

그렇다. 나는 '선'(여기서 말하는 '선'은, 한국 불교가 내세우는 '간화선'을 지칭함)을 제대로 공부해본 적이 없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관심을 갖고 살펴보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선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내지 못하고 있다. 왜? 우리 선사들에게서, 나를 '선'으로 끌어당기는 힘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2.

한국 불교의 대표 종단인 조계종은 선종을 표방하고, 그들의 '간화선'을 종지宗旨로 내세운다. 그래서 조계종에서는 어쨌든 '선'을 부정해서는 안 되고, '선사'로 인정받는 분들의 '힘'이 막강하다.

이런 조계종에 전국 선원의 수좌들 모임이 있다. 조계종이 종지로 내세우는 간화선이 제대로 살아있다면, 그 모임인 '전국선원수좌회全國禪院首座會'의 영향력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내가 여기서 말하는 '영향력'은, 조계종 정치 판도에서 종회의원을 몇 % 배출하고, 원로의원에 수좌 출신이 몇 % 들어가고 그런 것이 아니다. 승가 대중의 수행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재가 신도와 일반 대중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말한다.)

이 모임이 얼마나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지, 위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충주 석종사 혜국 스님을 통해 알아보자. 이 글의 목적은 혜국 스님의 모든 면을 살피고 그 모든 것에 '딴지'를 거는 데에 있지 않다. 그동안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알려진 스님의 언설에서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괜히 시비를 걸어보고, 이를 통해 한국 선사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들여다보자는 것이다.

3.

혜국 스님은 지난 2007년 3월 모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불교, 대의 갖고 정치참여 필요... '서울봉헌'은 망발, 지동설은 맹목... 서구교육이 禪 세계화 장애물, 한국의 보물은 간화선... 동네북 현실 안타까워"라고 했다.

이 신문이 전하는 인터뷰 내용 전문을 읽으며, 나는 이 한 가지에 '딴지'를 걸고 싶었다.

기자 - 현재 한국 간화선에는 점점이 없다는 비판이 많다. 스님께서서는 어떻게 점점을 해주시나?

혜국 스님 - "(죽비를 꺼내 보이며) 이것 좀 봐라. 죽비가 조각조각 나지 않았나. 점점 받으러 온 사람을 두드려서 이렇게 된 거다. 나는 이런 걸로 때리지만 성철 큰스님은 몰부레 회초리로 몸이든 얼굴이든 사정을 보지 않았나. 그 때는 억울하고 이럴 수가 있는가 싶은데 나중에는 그게 자비행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구산 스님도 주장자로 우리는 물론 외국인 제자들도 그렇게 땀. 유명한 버클리대 로버트 버스웰 교수도 (송광사에서 정진할 때) 맞고 나와서 하는 소리가 '오늘 지금 자기를 두드려 땀 것만으로도 미국 같으면 징역 9년이다'라고 했을 정도다. 잘못이 있거나 대답을 못하면 나도 사정없이 때린다. 그건 자비다." ["불교, 정치참여 해야 한다"- 석종사 혜국 스님 인터뷰, 이재형기자, 《법보신문》, 2007. 3. 6.]

자, 공부와 수행에서 점점이 죽비로 두드려 때리는 것인가?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할 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공부와 수행에서 점점이란, 공부가 진행되는 중요한 단계마다 "제자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어느 부분의 이해가 부족한지, 어느 곳에 더 신경을 쓰고 얼마나 더 노력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이를 일깨워주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것이 시대의 고금古今을 막론하고 또 동서양을 불문하고 가장 적절한 교육 방법일 것이다.

물론 일반 사회에서도 과거 일제의 군국주의 교육체제나 권위주의 시절에는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가 몽둥이와 회초리를 휘두르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고 일정한 효과를 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세상이 아니다. 혜국 스님은 성철 스님과 구산 스님의 일화를 거론하며 "사정없이 때리는 것이 자비"라고 하는데, 나는 이 한 말씀에 '간화선의 위기 한국 선과 한국 불교의 위기'가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표준으로 삼아야 할 스승은, 성철 스님이나 구산 스님이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어떤가?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일반 대중들을 대할 때 몽둥이로 마구 때리고 그런 적이 단 한 차례라도 있었던가?

부처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던, 별거벗고 미역을 감던 네다섯 살짜리 어린아이들도 반갑게 달려와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고 부처님께서 그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그들에게 맞는 가르침을 전해주시곤 하였다.

혜국 스님은 답해야 한다. "앞으로도 계속 '죽비가 부러지도록 두드려 때리는 것'을 '점점'이라고 고집하실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그건 간화선의 위기가 아니라 ‘한국 불교의 위기’를 앞당길 것이 확실하다.

내 생각에는 “간화선 함부로 비판하는 자는 되먹지 못한 놈”이 아니라, 간화선을 엉터리로 가르치면서 “이것이 진리다” 우기는 이들이 오히려 문제 덩어리로 보인다. 이들은 ‘간화선을 보호하고 간화선을 세계화한다’고 하지만, 해국 스님 표현을 빌리면 이들이 바로 ‘간화선을 동네북으로 만드는 사람’들이다.

4.

해국 스님은 아주 최근에 또 다른 언론과 인터뷰를 하며 ‘수행’에 대해 여러 가지를 말씀하였다. 물론 그 중에는 귀 기울여 듣고 그대로 좇아 마음공부를 하면 큰 도움이 될 내용이 많이 있다. 하지만 다음 한 가지에만은 ‘딴지’를 걸지 않을 수 없다. 기자 - 간화선이 위기라는 말이 이제 일상어처럼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티베트 불교가 대단한 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큰스님계선 한국의 대표적인 선원장들과 함께 다람살라를 방문해 달라이라마를 만나 범담을 나누신 것으로 압니다만.

해국 스님 - “그렇지요. 달라이라마를 만나 많은 문답을 주고받았습니다. 달라이라마와 주고받은 문답은 이렇지요.

‘티베트 불교에서는 무엇에 의지해서 공부를 하나?’

‘경전에 의지해서 공부한다.’

‘경전에 의지해서 공부해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공성과 자비다.’

‘공성과 자비의 무엇을 깨닫는다는 건가?’ 등의 대화를 나눴지요.

그러자 달라이라마는 다른 사람들과의 접견을 뒤로 미루고 본격적으로 한국불교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더군요.

그는 한국에서는 화두에 의지해 공부를 한다는 말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고, 함께 실수도 해보았지요.

한 30 분 좌선을 하니, 달라이라마는 이리저리 몸을 꿈틀꿈틀하며 자꾸 우리들 눈치를 살피시더군요. 사실 선방에서 수십 년을 지낸 우리들이야 앉아 있는 데는 이골이 난 사람들 아닙니까.

달라이라마는 이런 수행을 하루에 10 여 시간씩 하며 전국 100 개 이상의 선원에서 2,000 명 이상의 수행자들이 화두참구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적잖이 놀라시더군요. 그는 한국에 가면 제일 먼저 선방부터 방문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도 참선수행을 해보고 싶다는 말씀과 함께 말이지요.” [“몸과 마음 전체가 화두가 되어 텅 빈 허공이 되는 것이 견성”, 하안거에 든 석종사 해국 선사를 만나다, 이학중 기자, 《미디어 붓다》 2009. 6. 2]

여기서 스님께 ‘딴지’를 걸어보자.

해국 스님은 달라이 라마가 한국 불교의 수행 체계에 대해 묻고 우리 스님들이 ‘간화선 수행법’에 대해 설명하자 궁금해하며 실제 수행에 참여해보았다는 사실, 한 자리에 오래도록 앉아있지 못하고 몸을 꿈틀했다는 사실이 혹 “달라이 라마의 하근기를 증명해주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것이 아닐까 모르겠다.

달라이 라마에 관한 여러 정보를 종합해보면, 그는 한국의 선사들뿐 아니라 신경과학자 심리학자의 요청을 받아 머리에 실험도구를 달고 깊은 명상에 들 때 뇌파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확인하는 실험에 동참해주는가 하면 경영학자나 정치학자 영화배우 등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다.

혹 네다섯 살짜리 어린아이가 요청을 해도 아마 달라이 라마는 기꺼이 받아들여 대화를 나누고 아이에게서 배우고 받아들일 점이 있으면 그 또한 흔쾌히 수용할 것이다.

해국스님께서 놓치고 있는 중요한 점은, 인도에서 일어난 불교가 중국과 우리나라에 들어와 그곳 역사 환경과 조건에 따라 ‘선’으로 꽃을 피웠듯이 티베트 고원으로 들어간 불교는 그곳의 환경 조건에 따라 독특한 수행체계를 발전시켜왔다는 것이다. 전 세계에서 달라이 라마와 티베트 불교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단순히 신비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티베트 불교가 발전시켜온 고도의 수행체계, 티베트 수행자들이 전해주는 평화 메시지와 갖가지 스트레스로 고생하고 있는 현대인들이 티베트 불교의 명상 수행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혹 해국 스님께서 달라이 라마나 티베트 수행자들과 만나 불교의 교학을 깊이 논해보신 적이 있는지, 그들과 대화를 나누어보고 난 뒤에도 정말 그들의 근기가 낫다는 판단이 들었는지 여쭙어보고 싶다.

5.

여기서 말한 두 가지 말고도 해국 스님에게 묻고 싶은 것은 많다. 《미디어 붓다》와의 인터뷰 말미에 “부처님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의 마음이 되려면 1700 공안에 의지해야 하고, 특히 ‘무자無字’, ‘이 뭐꼬’, ‘뜰 앞의 잣나무’와 같은 화두에 의지해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선지식들이 이 화두를 들고 견성을 했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였다. 설사 화두선 - 간화선이 최상승이라는 간화 선사들의 말을 믿는다고 해도, 천 여 년 전의 상황에서 만들어진 ‘공안公案’이 아직도 유효하던 말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화두’는 변화무쌍한 것이지, 결코 ‘하느님’처럼 만들어 모시는 우상이 아니다. 혹 스님이 ‘간화선의 위기’를 걱정하고 간화선을 살려내 세계화할 의지를 갖고 있다면, 오히려 이 시대 이 땅에 맞는 스님의 ‘화두’를 생산해주길 바란다.

-이번 달부터 향산 이병두 거사님의 향산칼럼 연재 합니다.-

존엄사, 불교계는 어떻게 보나

국내 첫 존엄사 집행이 지난 6 월 23 일 이뤄졌다. 이번 집행으로 존엄사가 온통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존엄사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려는 시도가 사회 안팎에서 꾸준히 진행돼 온 만큼, 불교계도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만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본지는 지난 6월 24일부터 29일까지 교수, 목사, 수좌, 사회복지 관계자 등 각 분야의 전문가 20여 명의 의견을 들어보고, 법제화 이전에 논의돼야 할 것들에 대해 짚어봤다.

대부분의 스님과 교수들은 존엄사를 찬성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먼저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는 불교교리에 근거해 금생의 생이 전부인 것처럼 집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뇌사 판정으로 죽음이 결정된 사람에게 인위적인 연명장치를 이용해 생명을 연장하는 것을 반대했다. 이것을 ‘인연의 조작’, ‘생에 대한 집착’으로 해석했다. 법문을 하다 입적하거나 좌탈입망 한 옛 선사들을 예로 들어 불필요한 장치에 의해 생명을 연장하는 것을 반대했다.

두 번째로 삶과 죽음의 문제에 있어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므로 존엄사를 찬성한다는데 손을 들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엇보다 우선시 하고 있는 불교에서 결국 ‘죽음’을 결정하는 것도 본인의 몫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직결된다고 했다. 현대의학의 발전은 불치병도 고치는 희망을 안겨줬지만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아이러니 한 상황에 이르게 했다. 때문에 집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예전과는 달리, 대부분 병명을 갖고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비인간적이라고 했다.

존엄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주장도 잇따랐다. 광만연 동아대 윤리문화학과 교수는 “계율도 시대와 장소,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라며 “다른 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의 공간과 의사들의 한정된 시간과 능력을 빼앗지 않고 자기결정권에 의해 기록으로 밝혀 죽음을 맞이한다면 오늘날의 아라한이고 보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생과 사’ 그 어디에서 집착하지 말 것과 자기결정권, 업설, 삶의 질 등 다양한 이유를 들어 존엄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지만, 반대 의견을 제시한 스님들도 분명하게 드러났다. 목사스님들이었다. 이들은 생명의 존엄성은 언제 어디에서나 존중돼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했다. ‘울장’에 살생의 종류를 여러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존엄사가 방편살로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 또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살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마지막 까지 최선을 다해 살리는 것이 도리라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통도사 전계사 혜남스님은 “부처님께서도 아픈 사람은 최선을 다해 간호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면서 “의사는 가족이든 환자 주위에서 최선을 다해 생명을 살리는 것이 방생”이라고 역설했다.

포천 동화사 주지 화암스님도 “이 세상에서 ‘나’로 살 수 있는 기회는 한 번 뿐이므로 죽게 되면 성불할 수 있는 기회도 이번 생에서 이뤄질 수 없게 되는 것”이라며 “인간은 자기 운명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는 존재이므로 생명의 존엄성은 최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존엄사를 사회 필요악”이라고 말했다. 스님들은 또 이번 사안으로 자칫 생명경시풍조나 존엄사가 남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같이 찬반 의견은 뚜렷하게 엇갈렸다. 하지만 존엄사를 법제화하기 이전에 찬·반 의견을 절충한 대사회적인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을 한목소리로 역설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엄격한 존엄사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연명치료 중단 대상과 절차를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타 종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호스피스 활동의 활성화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호스피스를 통해 죽음의 문턱에 선 환자가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스님과 불자가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 이를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 보훈병원 법사 선문스님은 “예전에 비해 호스피스 교육이 활성화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면서 “불교대학 병원에 호스피스 병동을 마련하거나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활동가를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불치병에 걸린 이를 보고 방치하는 것이 옳은가 아닌가, 치료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의료진의 전문성과 윤리성, 존엄사의 범위 등을 충분히 고려한 체계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성철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는 “집안의 경제 상태, 형제간의 알력, 환자의 자율성 등을 고려한 연명장치심의위원회를 조직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환자 자신도 생전에 자신이 원하는 죽음의 방식을 문서화해 놓을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오진탁 한림대 교수는 “존엄한 죽음을 위한 선언서 리빙윌(Living Will)을 작성해 병자 스스로 존엄한 죽음을 맞는 방식을 결정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죽음만 아니라 삶의 방식까지 고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죽음관련 용어

존엄사 죽음에 직면한 환자가 품위 있는 죽음을 맞도록 하기 위해서 연명치료에 불과한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극적 안락사’로 불리기도 한다.

뇌사 뇌의 기능이 완전히 멈춘 상태를 뜻한다. 뇌가 손상돼 기능을 상실하면 호흡, 혈액순환, 신경반사 등의 신체 기능이 완전히 정지된다. 안락사 불치병 환자가 겪는 극심한 고통을 타인이 제거해 주거나 경감시킬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생명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관련법이 마련되지 않아 범죄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불교 교리적으로도 말기암 환자 등 고통을 줄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적극적 안락사는 반대하고 있다. 현생에 받아야 할 고통을 다 받지 않고 죽으면 내생에도 이어지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식물인간 대뇌의 이상으로 의식과 운동기능은 없지만 호흡과 혈액순환, 노폐물 배출 등 최소한의 신체기능은 유지되는 상태다. 소리는 내지만 의미 있는 말을 못하거나 눈으로 사물을 봐도 인식할 수 없고, 혼자 힘으로 움직이지 못해서 소변을 지리는 상태가 3 개월 이상 지속되면 ‘식물인간’ 상태로 본다.

-불교신문에서 발췌-

한국인 전생은 조선인...서구인 전생은 서구인? “전생기억, 문화종교적 암시 가능성” 주장 논문 나와

최면으로 전생 퇴행을 했을 때 최면 감수성이 높을수록 전생 퇴행이 잘되며 이른바 전생에 대한 기억은 문화·종교적 배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변영돈**신경정신과**의 변영돈 원장은 <국제임상심리학회지> 7 월호에 기고한 논문에서 21 살부터 23 살까지 64 명의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전생 퇴행을 한 결과 최면 감수성이 높을수록 ‘전생’을 잘 기억했다고 밝혔다. 최면 감수성은 최면을 걸면서 주어지는 12 가지 암시에 대한 반응에 따라 점수를 매기는 방법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감수성이 높다.

변 원장의 연구 결과, 최면 감수성이 11 점인 이들의 67%, 10 점 80%, 9 점 71%, 8 점 63%가 ‘전생’을 기억해 4 점 20%, 5 점 38%, 6 점 25%에 비해 평균 두 배 이상 높았다. 또 전생의 존재를 믿는 사람의 42.9%, 믿지 않는 사람의 44.8%가 퇴행에 성공해 전생 퇴행을 통한 기억 생산이 전생의 존재에 대한 믿음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변 원장은 서구와는 달리 자신이 전생에 동물이었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는 전생 퇴행을 통해 되살린 기억이 자신이 경험한 문화나 종교의 영향을 받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 원장의 실험에 참가한 이들 가운데 4 명은 자신이 전생에 호랑이, 여우, 사슴, 곰이라고 답했다. 그동안 서구에서 이뤄진 실험에서 전생에 동물이었다고 밝힌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변 원장은 불교 문화에 익숙한 한국인의 경우 사람과 동물이 서로 오가며 환생한다고 믿는 반면 뉴에이지의 영향을 받은 서구인들은 사람이 사람으로만 환생한다고 믿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 이번 연구에서 ‘전생’의 기억을 되살린 실험 참가자 가운데 대부분은 현재 자신과 비슷한 연령대의 경험을 기억했으며 자신이 살았던 시기가 조선 시대라고 말한 사람이 다수였다. 이는 서구인들이 주로 자신의 전생이 서구인이었다고 떠올린 경우와 비슷했다. 변 원장은 이 결과에 대해 “적어도 전생 퇴행을 통해 드러난 기억이 전생의 기억이 아니라 암시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이 연구 결과가 전생이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해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겨레 신문에서 발췌 :권복기 기자

“한국 불교, 세계에 알리려 영어로 강의”: 재미 사업가인 조일환 동국대 불교학과 객원교수

“불교학과 학생들에게 불교 영어를 가르칩니다. 학인 스님(대학에서 공부하는 승려)과 일반 학생이 반반인데...재미있는지 지각·결석하는 학생은 한 명도 없어요.”

동국대 경주캠퍼스 연구실에서 만난 조일환(72) 객원교수는 목소리가 크고 활기가 넘쳤다. 조 교수는 올해 2 월 이 대학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객원교수로 임용됐다. 하지만 그는 은퇴했거나 시간이 많은 사람이 아니다. 그는 현역 재미 사업가다. 1974 년 미국 뉴욕에서 코만 스포츠웨어를 설립해 지금도 경영하고 있다. 코만은 지난해 연 매출액 2500 만 달러에 미국 전역의 3000 여 소매업체에 납품하는 중견기업이다. 그런 그가 5 년 전 동국대에 입학, 원룸을 얻어 자취하며 학부 4 년 과정을 마쳤다.

“미국인들이 불교 신자인 걸 알고는 가끔 ‘불교가 뭐냐’고 묻는데 속 시원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불교를 공부하자 싶어 아내에게 사업을 맡겨 놓고 만학도가 됐습니다.” 그는 대도시가 싫어 경주 동국대를 선택했다. 성적우수 장학금을 4 차레나 받을 만큼 열심히 공부하고 방학이면 미국으로 돌아가 사업을 챙겼다. “공부해 보니 불교가 더 어려워졌어요. 하지만, 불교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는 터득했습니다. 서양의 가치관은 상하와 흑백 등이 있지만 불교는 원과 같은 세상이다. 원 안은 구별만 있지 우열은 없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는 이 논리를 지난번 경주를 찾은 덴버튼(71·14 선) 미국 하원의원에게 들려 주었더니 입을 딱 벌렸다는 것이다. 조씨는 불교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다. 96 년부터 한미불교진흥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1 월 말에는 미국 컬럼비아대학에 150 만 달러를 기부했고 한국불교 프로그램 개설 방안도 협의 중이다.

그는 미국 사회에서 한국 불교가 티벳(달라이 라마)·베트남(틱 낫한) 불교만큼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한다. 그들보다 영어 실력이 떨어져서라는 게 그의 진단이다.

그래서 그는 불교 종단도 하지 않은 일을 했다. 조씨는 2007년 불교 전공 학생들의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해 해외연수 기금 50만 달러를 동국대에 선뜻 내놓았다. 이번에 객원교수 제안을 받고 불교 영어를 가르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그는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관광상품은 템플스테이(절에 머무는 것)”라고 단언한다. 한국 산사에서 참선을 체험한 미국인은 대부분 친한파가 될 정도로 인기라는 것이다. 그는 “이걸 확대하고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제 스님들이 영어를 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미국 속에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누구보다 강조한다. 그는 84-92년 뉴욕 한인학교 이사장을 지냈다. 20년 전에는 미국 뉴욕 스토니브룩대학의 한국학과 설립에 힘을 보탰다. 미국 코넬대와 영국 옥스퍼드대에 한국 관련 서적을 기부했다. 그런 노력이 알려져 조씨는 지난달 미국 이민자에게 주는 최고 영예인 ‘엘리스 아일랜드상’을 받았다.

“미국 사회는 성실한 미국 시민이면서 동시에 자기 말과 자기 문화를 지키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자신들에게 없는 하나를 더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찾는 노력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조씨는 객원교수로 한국 체류를 연장하면서 이번 학기엔 아예 미국에서 자란 외손자와 외손녀를 데려왔다. 더 늦기 전에 한국말과 한국인임을 가르치기 위해 경주의 한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전학시킨 것이다.

중앙일보 사회면 2009년 6월 8일 기사 경주=송의호 기자

교리: 나치문양이 왜 근자와 비슷한 것입니까?

나치의 힘을 상징하는 게르만십자가, 불교에서의 근자는 최고의 길상문자

질문 / 집에 있는 고가구에 만(卍)자 문양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그것을 보더니 왜 나치의 문양을 한 것이냐고 기분 나빠하기에, 불교의 전통문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치는 불교적이었기에 유대인을 살해했다보다며 불교를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나치의 문양과 만자가 연관이 있는 것인지, 또 근자의 뜻도 궁금합니다.

답 / 문양은 ‘하켄크로이츠(Hakenkreuz)’로 ‘갈고리십자가’라는 뜻이 되며, ‘게르만십자가’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또 게르만족의 원류인 아리안족이 사용했던 고대문양이라고도 하지요. 물론 아리안족이 사용했을 때의 하켄크로이츠의 뜻도 매우 좋은 것으로 생명·힘·자유 등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기독교의 십자가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래쪽이 긴 십자가는 예수님이 사형당한 형틀에서 유래한 것이라고들 합니다.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같은 십자가는 기독교 이전부터 있던 동양의 길상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방정교의 십자가는 또 다르지요.

히틀러의 종교는 기독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죄인처럼 생각하여 몰살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고들 하지요. 그러므로 히틀러의 전쟁관은 기독교적 선(善)으로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 제국을 건설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합니다. 이와 비슷한 일들은 히틀러 이전에도 많이 있었고, 또한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일이기도 하지요. 히틀러는 게르만족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혈통이라고도 생각하여 ‘하켄크로이츠’를 문양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자는 아주 오래전부터 각 민족들이 사용한 길상문자입니다. 그 상징만 해도 완성·길상·광명·자비·생명·자유·충만 등의 뜻이 있다고 합니다. 또 불교뿐만 아니라 조로아스터교나 힌두교 등의 타종교에서도 상징처럼 사용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불교의 경전에서는 여러 곳에서 근자의 언급이 있습니다. 특히 부처님의 특별한 몸 모양을 설명하는 32상에는 부처님의 가슴에 이 근자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연기의 원리에 가장 적합한 상징이 되는 것이지요.

근자는 네 개의 꺾임으로 표시되고 있지만 사실은 무한한 흐름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글자에는 두 개의 유선이 교차하고 있지만, 무한한 유선의 수를 두 개로만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무한한 흐름의 교차는 온 법계와 통함을 뜻한다고 볼 수 있으며, 그때의 교차점은 우리 개개인의 자리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 한 점은 모든 것이 흘러 들어오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모든 것이 흘러 나가는 자리이기도 한 셈입니다. 무한히 먼 시공의 세계로부터 흘러 와서 무한히 먼 시공의 세계로 흘러가는 온갖 흐름이 나를 스쳐 지나가고 있지요. 그 모든 흐름을 관찰하기도 하고 또 그 흐름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나’라고 표현합니다.

만약 무한한 흐름에 집착하고 그 흐름을 탁하게 한다면 그때의 ‘나’는 중생일 것이며, 그때의 근자는 고탈을 뜻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흐름으로부터 자유롭고 그 흐름이 맑고 밝게 보인다면 그때의 ‘나’는 부처일 것이며, 그때의 근자는 정토를 상징하는 것이 되겠지요.

[불교신문 2535 호에서 발췌]

알아두면 유익한 불교 관계 홈페이지 주소:

불교 TV 방송: www.btn.co.kr

불교 라디오 방송: www.bbsi.co.kr

대한불교조계종: www.buddhism.or.kr

불교신문: www.ibulgyo.com; 불교포커스: www.bulgyofocus.net

법회소식 NEWS

- 조지아주 부다나라 정기 법회는 부다나라 (불국사) 사찰이 조지아주에 창립될 때까지 매달 둘째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계신 불자님들과 세인트루이스 부다나라 주지 선각 스님을 모시고 정기 법회를 가집니다.
관심있는 분들과 뜻깊고 즐거운 시간을 같이 가졌으면 합니다.
법회 장소는 George Pierce Community Center 에 있는 Meeting Room # 108 입니다. 주소는 55 Buford Hwy, Suwanee, GA 30024 이고, Center 연락처는 (404) 510-6957, 또는 (314)993-0185 입니다. 주소는 55 Buford Hwy, Suwanee, GA 30024 입니다. (문밖에 Close 라고 써어져 있어도 이시간 동안은 저희만 센터를 사용하니 주저하지 마시고 들어 오십시오.)
- 일요법회와 달리 영어로 진행되는 참선 법회는 매주 화요일 오후 7시와 토요일 오전 9시에 매주 두 번 있습니다. 화요일 법회는 토요일 법회에 있는 다도 시간 없이 참선 위주로 저녁 7시에 시작해서 8시 30분에 끝납니다. 참선에 관심있는 불자님들도 두루 참석하셔서 더운 여름 기간동안 하얀거 결재한다는 마음으로 마음담는 수행들을 같이 하셨으면 합니다 .
- 부다나라 회장 무량화 문봉순 보살님 가족, 김숙향 보살님 가족, 추형화 보살님 가족들이 한국에 일시 귀국했습니다. 다른 불자 가족들도 여름이라 많이들 자리를 비웠습니다. 이곳에 남아 있는 우리 불자 가족들은 이럴 때 일수록 일치단결해서 법회에 참석해서 마음발을 일구는 수행을 더욱 열심히 합니다.
- 부다나라 무량화 문봉순 회장님 장남 문병현 거사님께서 대구대학교 정보통신 대학 학장님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문병현 박사님 내외분은 평소에도 신심이 깊을뿐만 아니라 효성도 또한 깊은 분들 입니다.
- 매년 봄이 되면 부다나라 (불국사)에서는 가든 관리 기금마련을 위해 고추 모종을 판매해왔습니다. 올해에도 회장님을 비롯한 불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약 \$350 정도의 판매 기금이 만들어 졌습니다. 올해에도 고추 모종을 사가신 인연있는 많은 분들이 모종을 잘키우셔서 신선한 무공해 고추를 식탁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고추모종을 판매해서 만들어진 기금은 사찰에서 키우는 밭이나 꽃밭에 필요한 거름이나 장비를 사는데 사용합니다. 모든 신도님들이 노력한 덕분에 일요정기법회때마다 점심공양때에는 사찰 밭에서 무공해 재배한 고추, 상추, 깻잎, 호박 등등이 점심 상위에 올려집니다. 또한 깻잎이나 고추는 법회가 끝난 후에 필요한만큼 가져 가시기 바랍니다.

2009년 5월, 6월 신규 인등 기도 동참자: 87번 신해생 각수심 변지예, 85번 신축생 정태주, 86번 을사생 박정화, 200번 신축생 김연순, 270번 땅 친구 김상희 영가 (전현진 복위), 513번 무자생 조민아, 586번 병자생 조형준, 587번 을사생 남기권, 588번 경술생 장입분, 589번 임신생 남아현, 590번 갑술생 남승완, 591번 무신생 김동현.

인등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등기도는 매달 첫째주 일요일에 있고 매달 동참비는 \$10.00 입니다. 인등기도에 동참하신 불자님들은 꼭 법회에도 참석해 주십시오. 부득이한 사정으로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불자님들께서는 집에서라도 마음과 몸을 정갈하게 갖고 가정에서라도 꼭 기도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부처님을 모시는 가람을 지으면, 그가 후세에 태어나는 곳마다 지혜와 복덕이 구족하다고 하셨습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중생들은 사바세계가 혼탁하고 탁류가 거셀수록 부처님의 자비하신 참모습을 그리워하고 그 정신대로 살자 더욱 간절한 원력을 세웁니다. 또한 물질과 마음의 정서가 어지러운 세상일수록 마음의 교양과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담당해 줄 곳을 찾기 마련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불교인구가 그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방면의 불교 포교를 위해서 법당과 선방 건립에 필요한 한 평 불사 인연에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자비심이 지극하신 분들의 정성으로 이룩된 부다나라 템플은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불국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희망차고 기쁨에 찬 수행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지은 이 인연공덕으로 불자님의 가정마다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여 자비의 문이 열리고 이 세계가 불국정토 되기를 합장 발원합니다. (부처님 불사는 \$10,000(일천만원)이고, 한 평 불사는 한 평에 \$1,080.00 (백 팔 만원)입니다.)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 모니불.
부처님 불사: 경자생 안대원.
한 평 불사: 경신생 조수정 .

불사 동참을 원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미국 불국사, 또는 한국 불국회 회장님 및 불국회 팀장 및 총무님께 연락 주십시오.

Buddhanara Temple (불국사) 불자님들 주변의 소식을 접수 받습니다. 기쁜 일은 서로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픈일은 같이 나누면 반으로 된다는 부처님의 자비 사상에 입각해서 불국사 (Buddhanara Temple) 가족들의 경조사를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는 꼭 참석하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의 발심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 합시다.